

景觀分析 및 評價方法에 關한 研究*

— 現象學的 接近 —

任 勝 彬
서울대학교 農科大學 造景學科

A Study on the Landscape Analysis and Evaluation Method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m, Seung-B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Agriculture, SNU.

SUMMARY

Phenomenological approach suggests a new dimension in landscape evaluation, which is a contrast to the existing scientific evaluation metho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s qualitative, holistic, open, and experiential, whereas that of the scientific approach is quantitative, reductive, closed, and experimental. In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average response of a group is not considered as meaningful in landscape evaluation. Instead, the individual response, experience, and feeling are considered as important.

In phenomenological approach, people try to see the real world as it is, while scientists tend to simplify the real world in order to handle the complex phenomena easily.

Due to its holistic and qualitative nature,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has limitations to be a practical landscape evaluation technique. However, recent research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phenomenological landscape evaluation technique which is able to satisfy the criteria scientific methods should meet.

1. 序 言

경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고자하는, 소위 과학적 접근방법이 최근에 오면서 일부학자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고 있다. 사실 과학적 접근은 형식적 방법 혹은 엄격한 평가과정에 너무 얽매임으로 해서 경관이 지닌 문화적 사회적 의미, 개인적느낌 등과 같은 인간생활과 관련된 경

관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평가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해주고 있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경관을 분석 혹은 평가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경관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인체는 오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물리적 자극은 물론이고, 경관의 역사, 의미, 느낌 등을 대상으로하며, 이들이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경관의 고유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1987년도 post-doc 연수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988년 5월 26일 접수된 논문임.

한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경관의 고유한 특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주로 지리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독특한 시각은 경관평가는 물론 환경설계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같은 새로운 바람은 보다 완벽한 설계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관평가 방법을 분류하고 그중에서 현상학적 접근의 특성 및 가능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景觀評價方法 分類

경관평가에 관한 관심은 1960년대 이후 경관자원의 보존,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의 최소화, 레크레이션 기회의 증대, 도시경관의 향상 등의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높아져 왔으며, 각각의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방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분류함에 있어서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중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아서」등(Arthur, et al., 1977)의 분류

「아서」등은 기존의 자연자원의 경관미 평가방법에 관한 포괄적 고찰을 함에 있어서 경관평가 방법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가. 목록작성(descriptive inventories)

나. 대중선호 모델(public preference model)

다. 경제적 분석(economic aspects of esthetic measurement)

2) 「쥬비」등(Zube, et al., 1982)의 분류

「쥬비」등은 경관분석 및 경관지각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접근방법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전문가적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

나. 정신물리학적 방법

다. 인지적 방법

라.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

3) 「대니얼」과 「바이닝」(Daniel & Vining, 1983)의 분류

「대니얼」과 「바이닝」은 경관의 질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가. 생태학적 접근

나. 형식미학적 접근

다. 정신물리학적 접근

라. 심리학적 접근

마. 현상학적 접근

여기에서 현상학적 접근이라함은 심리학적 접근보다 더욱 개인의 느낌, 혹은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경관을 대함에 있어서는 경관의 역사, 개인이 경관에 대하여 지닌 과거의 경험, 개인이 경관을 대하게 된 동기, 의도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 모두를 경관평가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터뷰,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경관을 평가하게 된다. 이 접근방법은 「쥬비」등(Zube, et al., 1982)이 분류한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綜合的 分類

이상에서 언급된 세가지 분류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경관분석 및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6가지의 접근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기호학적 접근(任, 1986, p.104)을 추가한다면 모두 7가지의 접근측면이 있게 된다.

가. 생태학적 접근

나. 형식미학적 접근

다. 정신물리학적 접근

라. 심리학적 접근

마. 기호학적 접근

바. 현상학적 접근

사. 경제학적 접근

여기에서 경제학적 접근이라함은 대상경관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정경관이 지닌 시각적 혹은 미적가치, 즉 추상적 가치를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는 뜻이다(Arthur, et al., 1977).

이상의 분류는 경관을 분석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학문의 분석방법 혹은 이론을 도입하느냐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같은 종합적 분류는 '경제학적 접근'과 '기호학적 접근'을 제외한다면 「대니얼」과 「바이닝」(Daniel & Vining, 1983)의 분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심리학적 접근이라함은 「대니얼」과 「바이닝」이 분류한 '심리학적 접근'의 내용과 「쥬비」등이 분류한 '인지적 방법'을 포괄하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류를 기초로하여 주로 현상학적 접근을 다루기로 한다.

3. 現象學的 接近의 特性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의 평가 혹은 분석기법이라기 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은 기존의 과학적, 정량적 접근

근에 대비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소위 과학적 평가방법에서 일반성 혹은 대표성의 추구로 인하여 경시될 수 밖에 없었던 개인의 경험 및 고유성의 파악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생태학적, 형식미학적 접근방법이 전문가의 판단에 주로 의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정신물리학적, 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일반대중(이용자)의 선호도 혹은 느낌을 주요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정신물리학적 및 심리학적 접근에서와 같이 일반인(혹은 일정집단)의 평균적 반응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즉 개인의 다양한 반응, 느낌, 의미등을 모두 환경 혹은 경관평가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정성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형식미학적 접근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성적 접근인 형식미학적 접근의 반작용으로 정량적(혹은 과학적) 접근인 정신물리학적 및 심리학적 접근이 대두되었으며, 다시 이의 반작용으로 정성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학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음은 흥미있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이 정성적이라고는 하나 형식미학적 접근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방법임은 물론이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정성적 접근이라는 점, 환경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경관평가방법으로서 실무에 응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성이 있음은 사실이나, 경관평가를 함에 있어서 추구하여야 하는 본질적인 측면을 제시해 주고 있음은 틀림없다.

1) 現象學이란?

현상학은 분석철학과 함께 현대철학을 대표하는 두가지 큰 흐름이다. 현대철학은 실존주의와 언어철학으로도 나누고 있는데, 현상학과 분석철학은 철학의 '방법'에 관한 개념적 구분이며, 실존주의와 언어철학은 철학이 추구하는 '대상'에 관한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朴, 1985).

현상학에서 다루는 현상은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 현상을 뜻한다.

“현상학에서 현상이란 말은 의식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혹 그 의식의 물리적 대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대상이 의식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리킨다(朴, 1985, p.13).”

따라서 현상학은 어떤 대상을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겪게되는 체험의 기술을 통해서 인식하고자 한다. 여기서 체험의 기술이라함은 선입관, 편견 등이 없는 순수의식의 상태에서 체험되는

바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현상학은 일반과학과는 달리 확고한 출발점도 채택하지 않으며, 일관된 접근방향도 취하려하지 않는다. 현상학은 단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할 뿐이다. 경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물이 스스로 밝혀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점진적이고 불명확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명확한 과정으로 인하여 현상학이 애매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현상학이 지닌 본래의 특성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특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ph, 1983, p.201).

현상학은 인간과 환경을 2분법적으로 보는 것을 부정한다.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이 환경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인간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보려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통일체의 '내적구조'(intra structure)를 보고자 한다(Lim & Albrecht, 1987).

현상학은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인문사회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는 현상학의 대상이 물리적 현상이 아닌 경험적 현상이며 인문과학이 물질적 세계가 아닌 정신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사회과학, 현상학적 역사학 등이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사회과학에서 이야기되는 현상학은 본래의 현상학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록 현상학적 방법에서 인문사회과학이 성립된다해도, 이런 경우에 쓰이는 현상학이란 개념은 극히 영성한 의미로서의 현상학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인문사회과학에 필연적으로 내포되어있는 경험이라는 현상을, 아무런 독단적인 선입감없이 있는 그대로, 즉 체험되는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후서일이 말하는 체험적 자아의 발굴이라든가 현상의 본질을 알아내는 의미로서의 현상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상학이 인문사회과학의 방법으로 채택될 때 현상학은 철학적 삶의 방법임을 그치고 과학적 삶의 방법론으로 전락한다.(朴, 1985, p.53)”

인문사회과학이 현상학과 관련을 맺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환경평가 및 경관평가도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즉 환경평가 및 경관평가에서 환경 혹은 경관에 대한 개인의 체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입장에서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2) 現象學的 接近方法과 科學的 接近方法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과학적 접근방법(혹은 과학적 실증주의)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적 접근방법은 (가설의 설정) → (가설의 검증)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아무런 가설이나 전제조건없이 순수하게 해당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시몬」(Seamon, 1982)이 주장하고 있는 두 방법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

a. 전통과학적 방법과 현상학적 방법을 모두 경험적(empirical)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기존의 과학적 접근은 주로 가시적인 변수만을 고려하는 실험적 접근이라고 말한다면 현상학적 접근은 가시적, 비가시적인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체험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b. 전통과학적 방법은 가설, 개념, 용어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정의된 범위내에서 논리를 전개하지만, 현상학적 방법은 가설, 정의등을 배제하고 개방적인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한다.

c. 전통과학적 방법은 복잡한 실제현상을 조각이 가능한 범위로 단순화시켜서 연구하는 '환원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현상학적 방법은 실제의 현상 그대로를 연구하는 '총체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d. 전통과학적 방법은 주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접근을 택하므로 '정량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현상학적 방법은 현상의 개별성, 독특성을 고려하는 '정성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e. 전통과학적 방법은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하여 예측 및 통제를 추구하고는데 비하여, 현상학적 방법은 복잡다양한 현상내에서의 단순한 인과관계에 대하여 회의론을 가진다.

f. 전통과학적 방법은 한번 설정된 사실은 명확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확성'을 강조하지만,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 존재자체가 애매하며 복잡하므로 완벽한 정확성이란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g. 전통과학적 방법에서 연구의 주된 목표는 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을 얻는데 있으므로 '예측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하여, 현상학적 방법에서는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다.

h. 전통과학적 방법에서는 공인된 연구가 되기 위하여는 반복실험이 가능하여야 하며(신뢰성), 별도의 방법으로 연구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타당성). 그러나 현상학적 방법에서는 "진실된 체험을 기술하고 있는가?"와 같은 체험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요구된다.

i. 전통과학적 방법은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며, 장래의 관리를 위한 도구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서,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고자하며 원인보다는 사건의 의미를 추구한다. 따라서 전자는 설명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면, 후자는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상학적 접근은 과학적 접근이 복잡한 실제현상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고찰함으로써 실제현상을 보기보다는 자기나름대로 조작된 현상을 본다고 지적하며, 현상을 실제 그대로 고찰함으로써 보다 현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im & Albrecht, 1987).

표1 전통과학적 방법과 현상학적 방법의 비교

전통과학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 실험적	· 체험적
· 폐쇄적 : 가설, 정의등을 중요시함	· 개방적 : 가설, 정의등을 배제함
· 환원주의적 : 실제상황을 단순화시킴	· 총체적 :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함
· 정량적 접근	· 정성적 접근
·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짐	·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짐
· 정확성을 강조함	· 정확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짐
· 예측지향적	·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
· 신뢰성과 타당성이 요구됨	· 체험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 요구됨
· 피험자의 특성 및 개성이 연구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피험자의 개성 및 특성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설명을 목표로 함	· 이해를 목표로 함

(자료 : Seamon, 1982, p.123)

3) 현상학적 2분법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인간-환경'이라는 전통적인 2분법을 지양하고, 인간과 환경을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2분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李, 1988).

즉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인간-환경의 2분법을 설정하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성을 보기보다는,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상황의 여러 경험적 측면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장소성-비장소성, 내부성-외부성(Relph, 1976, p. 49), 장소애착-장소혐오(Tuan, 1974, 1979) 거주-여행 등과 같은 경험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2분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주환경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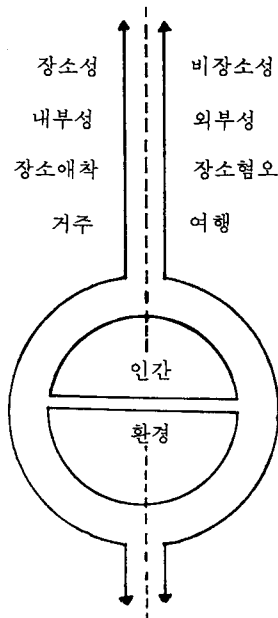


그림1. 현상학적 2분법

4. 景觀과 現象學

현상학적 접근은 현재까지 주로 장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경관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독특한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음은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와는 다른 경관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景觀(landscape)과 場所(place)

경관과 장소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므로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동시에 경관과 장소의 구분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경관은 원래는 내륙자연풍경을 의미하였으나 요즘은 내륙, 해양을 구분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자연, 인공을 구분하지 않고 시야에 전개되는 풍경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 경관분석 혹은 평가라고 할 때에는 이와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경관을 의미함은 물론이다.

특정경관을 일컫고자 할 때에는 산림경관, 사막경관, 해양경관, 혹은 자연경관 인조경관과 같이 특정한 이름이 선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경관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몇가지 관점에서 대비시켜볼 수 있겠다.

첫째로, 우리가 경관을 생각할 때는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함축됨을 느끼지만 장소를 생각할 때는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됨을 느낀다. 따라서 경관은 자연적이건, 인공적이건 바라다보이는 '배경'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장소는 '중심' 혹은 '점'의 의미를 함축한다(그림2).

둘째로, 경관은 물리적 구성의 성격이 강하며, 넓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고 있는데 비하여, 장소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적 범위를 함축하며 물리적 성격에 더하여 행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배장소, 노는 장소, 싸우는 장소 등과 같이 특정행위 혹은 기능이 장소와 관련되며, 따라서 장소에는 행동적 혹은 기능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장소는, 행위를 함축함으로써 인하여, 경관에 비하여 더욱 경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릴 때 놀던 장소, 혹은 그녀와 거닐던 오솔길(장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사람과 특정공간이 어우러진 경험을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로, 장소는 행동의 중심이고 경관은 이의 배경이라고 본다면, 장소의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경관은 장소로 전환된다. 또한 한 장소를 중심으로 다른 장소를 보게되면 다른 장소는 중심이 되는 장소의 배경 즉 경관으로 전환될 것이다. 예를들면 도시를 떨어져서 관찰할 때는 도시 '경관'을 보게되지만, 그 도시에 들어가면 도시는 행위를 담는 다양한 '장소'로서 이루어졌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경관과 장소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상호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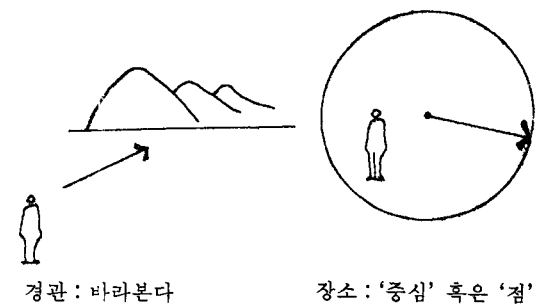


그림2. 경관과 장소의 개념

2) 地理學的 接近

현재까지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경관평가가 시각 자원관리 혹은 환경설계에 실제로 응용된 예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경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경관(landscape)의 이해에 관한 지리학적 접근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과 유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아이켄」(Aiken, 1976), 「렐프」(Relph, 1976), 「투안」(Tuan, 1979) 등의 지리학자들은 현상학적 접근을 표방하고 있거나 현상학적 접근과 유사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투안」은 경관을 연구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상적이고 인간적인 거주환경의 추구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거주환경은 인간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 미적인 가치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경관은 우리들이 꿈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며 더 나아가서 격려해 준다. …… 동시에 경관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로 생각을 유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피어나도록 하고 다음에 생각의 초점을 경관에 맞추게 되면, 우리들은 인간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배우게 됨은 물론이고, 인간존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거주환경의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배우게 된다(Tuan, 1979, p.101).”

이상의 인용문으로부터 지리학적 입장에서 경관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지리학적 입장에서는 여러 경관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각각의 경관이 지닌 독특한 가치 의미를 밝혀내고 이해하는데 주요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켄」의 입장을 살펴보면 위의 사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

“지리학자의 경관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들과는 매우 다르다. 지리학자는 한눈에 전부 보여질 수 없는 공간적 단위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지리학자는 특정 경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및 과거의 다양한 자료를 모은다. 이에 더하여 지리학자는 경관의 보이는 ‘객관적인’ 형상을 고려하며, 이들 형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도 고려한다. 지리학자는 경관에 관한 개념, 가치, 태도 즉, 물질적 및 비물질적인 문화의 흔적을 밝히기를 원한다(Aiken, 1976, p.21).”

지리학자들의 노력이 실용적인 경관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관을 보는 새로운 측면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경관평가에 새로운 고려사항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리학자들은 문화적 경관의 이해에 주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에 대한 선입관에 제한받지

않는 경관과의 직접적인 경험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겠다. 경관분석에 있어서 지리학적 접근은 총체적이며 정성적인 방법을 채택한다는 점, 경관에 내재된 가치 및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여진다(Daniel & Vining, 1983).

3) 現象學的 接近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리학자들은 문화적 경관 특성에 주된 관심이 있는데 비하여,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경관과 인간이 어우러진 경험의 내용을 중요시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험 내용이 문화적 현실과 완전히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볼 때 지리학적 입장과 현상학적 입장의 필연적 관계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지리학적 입장은 경관에 내재된 의미, 가치등을 밝히는 것이라면, 현상학적 입장은 경관의 의미, 가치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개인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노베르그슐츠」(Noberg-Schulz, 1980)는 현상학적 접근을 표방한 그의 저서 “장소의 영혼(Genius Loci)”에서 자연환경의 현상을 사물(thing), 우주적 질서(cosmic order), 특성(character), 빛(light), 시간(time)의 5가지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물과 질서는 공간적 요소라 하였고, 특성과 빛은 일정장소의 전체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소라 하였으며, 시간은 항구성 및 변화의 차원으로서 공간과 특성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노베르그슐츠」는 이상의 기본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네가지 경관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a. 낭만적 경관(romantic landscape): 대표적인 경관으로 북유럽의 숲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여러 장소들의 복합체이며, 인간은 이들 각각의 장소에서 다양한 자연력을 경험한다. 이들 숲에서는 시야는 제한되며, 따라서 미시적(소규모)공간을 경험하며, 동화속에 나오는 숲속의 ‘난장이’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와같이 인간을 꿈꾸는 듯한 혹은 공상적인 세계로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낭만적 경관이라고 부른다.

b. 우주적 경관(cosmic landscape): 대표적인 경관으로 사막을 들 수 있는데 끝없는 불모의 땅, 구름없는 광대한 하늘로서 특징지워진다. 거시적(대규모)공간을 경험하며 전체적으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질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사막에서는 낭만적 경관에서처럼 개별적 장소가 없으며 따라서 다양한

자연력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절대적인 우주적 특성을 경험한다. 사막의 거주자에게는 ‘장소의 영혼’이 곧바로 ‘절대자’ 혹은 ‘유일신’을 뜻한다. 유일신을 갖고 있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가 사막을 배경으로 탄생되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c. 고전적 경관(classical landscape): 대표적인 경관으로 그리스의 경관을 들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며, 규모에 있어서 인간적이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산, 구름, 계곡, 분지 등의 요소가 명료한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형은 연속적이면서 변화를 지닌다. 각 부분들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하늘은 높고 친근하며 사막에서 처럼 절대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리스 사람들은 경관에서 경험된 다양한 특성들을 의인화된 신으로서 인격화 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특성을 연결시킨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에서 ‘난장이’ 혹은 ‘유일신’을 보지않고 인간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자신을 자연과의 동등한 협력자로 여기며, 자연을 인간의 친근한 보완관계로서 이해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하늘과 땅은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고 있다.

d. 복합적 경관(complex landscape): 앞서 언급된 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경관은 세가지의 기본적 경관유형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불란서의 경관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서 사막과 비슷한 공간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토지는 비옥하므로 ‘비옥한 사막’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불란서 경관은 우주적, 낭만적, 고전적 특성이 융합되어서 풍부한 의미를 지닌 통일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한 알프스 경관은 톱날같은 윤곽과 협곡의 대비에 의하여 ‘야성적 낭만성(wild-romantic)’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이상에서 「노베르그슈츠」에 의한 경관분류를 살펴보면 이를 통하여 현상학적 접근이 경관분석에 적용되는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노베르그슈츠」는 경관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관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고 다른 경관과 비교하여 독특한 특성을 파악한 다음, 이들 특성이 인간존재 혹은 거주에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그림3).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의 질에 대한 높은 예민성을 추구함으로써 체험적 정성적 입장을 유지하며, 따라서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적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신뢰성(任, 1986, p.372)은 낮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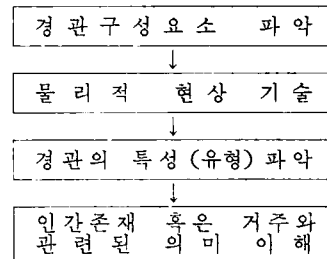


그림3. 「노베르그슈츠」의 경관분석 과정(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은 물리적 현상을 분석의 시발점으로 하지만 개인적 경험, 심리적 영향, 존재적 의미 등을 더욱 중요시 여김으로써 다른 접근방법과 커다란 차이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개방적인 입장에서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경관의 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타당성(任, 1986)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현상학적 접근은 앞서 언급된 바와같은 체험적, 개방적, 총체적, 정성적 특성으로 인하여 실용적 경관 분석 및 평가방법으로 이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상학적 접근은 경관의 질에 대하여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성이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Daniel & Vining, 1983). 이방법은 다른 폐쇄적 방법에 의해서 빠뜨리거나 과소평가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다른 방법과 함께 보완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5. 現象學的 分析技法

경관분석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이 정성적 접근이며 개인적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은 엄격한 분석기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경관분석 혹은 평가를 하기 위하여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정립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현상학적 입장에서 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론이 제시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현상학적 입장에서 가정(home)의 여러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을 볼 수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법들은 경관의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전문가의 경험적 고찰, 개방적 인터뷰, 분류법(sorting) 및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기법의 세가지로 분

류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비록 경관이 아닌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분석기법만은 경관분석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1) 전문가의 경험적 고찰: 이 방법은 앞서 「노베르그슐츠」가 경관을 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복합적 경관으로 분류, 분석하면서 주로 경관을 인간존재의 의미와 연결시킴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 및 지식에 근거하였음을 말한다.

「로렌스」(Lawrence, 1987)는 가정의 여러 측면을 주로 기존의 문헌 및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는 앞서 「노베르그슐츠」가 채택한 방법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로렌스」의 분석내용을 보면 문화적, 사회인구적, 심리적인 세가지 차원에서 가정의 속성을 분석하고 있다. 문화적 차원으로는 우주의 이미지, 친족규범, 주택구성과 향, 주택건설방법, 생활양식, 언어, 사회적 가정적 의식, 관습과 규범, 건축법규, 공동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사회인구적 차원에서는 주민의 성과 연령, 가족의 인구 구조와 구성, 수입, 직업, 기술의 영향, 사회경제적 가치, 가정적 사회적 역할, 가정의 일상적 일, 사교와 일상적 일, 종교를 들고 있다. 또한 심리적 차원에서는 자부심, 개인적 특성, 개인적 공간과 프라이버시, 희망과 목표, 개인적 가치, 개인적 선호, 개인적 역할, 주거역사, 인생의 단계, 가정의 상징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일반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연구자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현상학적 경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2) 개방적 인터뷰: 「페니츠」(Pannartz, 1986)는 일반인에 대한 개방적 인터뷰와 인터뷰 결과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가정에서 즐겁거나 혹은 즐겁지 못하게 느끼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는 다섯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상호간의 의사소통, 둘째는 상호간의 접근성, 셋째는 일을 마친후의 휴식, 넷째는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다섯째는 심심하지 않을 만큼의 일거리가 있음이다.

「페니츠」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에 정의를 내림이 없이 주제의 의미가 응답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밝혀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응답자들은 자유롭게 그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유도되었으며 일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가정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답: (대개 모두가 쉽게 대답한다)

질문: 왜 즐겁습니까?>

답: (대부분 우물쭈물하며 이유를 찾아내려한다)

질문: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어떤일이 있었습니까?

답: (일반적인 대답을 한다)

질문: (더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면)표현하기 어려운줄 압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시로 각각의 자료에서 나타난 속성에 관한 명칭을 붙이고, 다음으로 이들 명칭을 종합하여 조정하였다.

이와같이 개방적 인터뷰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전에 어떤 정의나 가설을 세우지 않고 정성적으로 접근하는 현상학적 방법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인터뷰시에 응답자의 대답이 조사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관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특히 조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할 때에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3) 분류법(sorting)과 다차원 분석법(multidimensional scaling): 「섹스미스」(Sixsmith, 1986)는 개방적 인터뷰, 분류법, 다차원 분석법을 활용하여 세가지 유형의 가정을 구분하였다. 이들 유형은 첫째로 가정을 자신의 연장으로 보는 '개인적' 가정, 둘째로 가정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친구나 친척을 접대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보는 '사회적'가정, 셋째로 가정은 물리적 구조와 건축양식 뿐만 아니라 기능적 공간을 포함하는 물리적 실체로 보는 '물리적'가정이다.

이상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단계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단계로 응답자들은 자유롭게 가정의 의미를 기술하였는데, 상상할 수 있는 범위내의 모든 유형의 가정을 대상으로하여 다양한 개념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개방적 인터뷰'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단계로 응답자들은 인터뷰에서 도출된 여러 개념들을 '가정으로 생각되는 것'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분류법(multiple sorting task)이라 부른다.

셋째단계로 다차원 분석기법(multidimensional scal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가정의 의미에 내재된 구조를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는 「페니츠」와 같이 심층적인 인터뷰를 위

하여 '개방적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분류법 및 다차원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도 역시 응답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세가지 기법중 두번째와 세번째 기법은 현상학적 접근을 고수하면서 과학적 기준(신뢰성, 타당성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경관분석을 위하여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다.

6. 要約 및 結論

경관평가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기존의 과학적 방법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과학적 접근이 정량적, 환원주의적, 폐쇄적, 실험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한다면 현상학적 접근은 정성적, 총체적, 개방적, 체험적 특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선호도, 느낌을 경관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일정 집단의 평균적 반응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반응, 느낌, 의미 등을 더욱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상학적 방법은 기존의 계량적 혹은 과학적 방법이 지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계량적 혹은 과학적 방법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현상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실제 현상 그대로 보지를 못하기 쉬운데 비하여,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실제 그대로의 현상을 보려고 시도하며 현상의 본질을 캐내려고 노력한다.

현상학적 접근은 총체적이며 정성적인 입장을 가짐으로써 실용적인 경관평가 기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개념과 신뢰성, 타당성 등의 과학적 형식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경관평가에서 현상학적 접근의 대두는 기존의 체계적, 계량적 방법의 내용적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재검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인 용 문 헌>

- Aiken, S.B.(1976) "Towards landscape sensibility." *Landscape* 20(3) : 20-28.
- Arthur, L.M., T.C.Daniel, & R.S.Boster(1977) "Scenic assessment : An overview" *Landscape Planning* 4 : 109-129.
- Daniel, T.C. & J.Vining(1983)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landscape quality." In I.Altman & J.F.Wohlwill(eds.)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New York : Plenum Press : 39-84.
- Lawrence, R.J.(1987) "What makes a house a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19(2) : 154-168.
- Lim Gill-chin & J. Albrecht(1987) "A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ning theory : use of phenomenology" *The J.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4(1) : 14-30.
- Norberg-Schulz, C.(1980) *Genius Loci :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London : Academy Editions.
- Pennartz, P.J.J.(1986) "Atmosphere at home : a qualitative approach."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 : 135-153.
-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td.
- Relph, E.(1983) "Edward Relph's response"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 201.
- Seamon, D.(1982) "The phenomenological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sychology."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 : 119-140.
- Sixsmith, J.(1986) "The meaning of home : an exploratory study of environmental experience." *J.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 : 281-298.
- Tuan, Yi-Fu(1974) *Topophilia :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Jersey : Prentice-Hall.
- Tuan, Yi-Fu(1979) *Landscapes of Fear* Oxford : Basil Blackwell.
- Zube, E.H., J.L.Sell, J.Taylor(1982) "Landscape perception : Research, application and theory." *Landscape planning* 9 : 1-33.
- 朴異汶(1977) 現象學과 分析哲學 서울 : 一潮閣
- 李揆穆(1988) "人間과 環境의 關係에 대한 現象學的 接近方法研究" 大韓建築學會 論文集 4(1) : 35-45.
- 任勝彬(1986) 環境心理·行態論 서울 : 普成文化社